



최명섭
임업연구원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의 가시면류관은 호랑가시나무로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이 나무의 가시는 줄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각형 잎끝에 돋아나 있어 결국 이 오각형 잎끝의 예리한 가시가 예수를 피흘리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성탄절카드에는 이 나무의 오각형 잎과 붉은 열매가 예쁜 리본을 곁들여 흔히 그려지고 있다. 또 「축복을 주는 나무」 「축복을 받는 나무」 등 크리스마스 트리의 상징적인 나무로서 널리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구미 각국에서는 이 나무를 귀중한 관상수로 가꾸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쓸모 없는 잡목으로 여겨 마구 베어지는 바람에 희귀해졌는데 외국에서는 이같은 한국산 호랑가시나무를 가장 우수한 품종

으로 인정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Holly Society America에서는 세계각국대표들이 참가 이 나무의 신품종 개발과 분포지역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눌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천리포 수목원 원장인 민병갈씨가 대표로 참석, 호랑가시를 소개하고 있다.

1. 생태적 특성

낙엽활엽소교목으로 수고 5m정도 자라며 수평적으로 전



호랑가시 나무

과명 : 감탕나무과

학명 : *Ilex cornuta*

Lindle. et Pax.

영명 : Chinese Holly,

Korean Holly,

Horned Holly

한명 : 猫兒刺

일명 : ひいらぎも

どき

북의 변산반도, 전남의 완도, 제주도에 자생하며 표고 100m 이하 저지대의 산록 양지와 하천변에 자라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중국 동북성에 분포한다. 양지에서 잘 자라고 추위에 약하나 서울지방에서는 나무그늘 밑이나 음지의 풍충(風衝)과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서는 월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토심이 깊고 비옥한 곳에서 생장이 양호하다.

2 형태적 특성

밑에서 많은 줄기가 나와 군락을 이루어 자라며 잎은 호생하고 가죽과 같이 두꺼우며 윤채가 있고 길이 3.5~10.0cm로 양면에 털이 없다. 육각형 잎끝에 날카롭고 단단한 가시를 가져서 마치 호랑이 발톱과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호랑가시란 나무 이름이 붙여 졌으며 나무가 자라면서 차츰 퇴화되고 하나의 가시만 남는다. 꽃은 자웅 이가화로 암나무, 수나무가 따로 있으며 4~5월에 백색으로 피고 지름 7mm내외이며 향기가 있고 액생하는 산형화서에 5~6개씩 달린다. 9~10월에 지름 8~10mm의 둥근 열매가 적생으로 익어서 겨울동안 나무에 달린채 월동한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남부지방에서는 주로 정원에 식재하며 중부 이북에서는 주로 분에 심어 관상한다. 수관이



둥그렇게 퍼지며 높이보다 옆으로 더 크게 퍼지므로 수형이 아름다워 공원, 정원 등의 잔디밭에 단식해도 좋으나 가지와 잎이 밀생하므로 울타리로 많이 쓰이며 은폐의 목적외에 작은 동물들의 침입도 막을 수 있다. 상록성 활엽관목으로 상록의 질푸른 잎과 무르익은 적색의 아름다운 열매는 성탄절 장식용으로 쓰이고 성탄절 카드에도 육각형 잎과 붉은 열매가 자주 등장하여 매우 친근한 관상수이다. 특히 공해에도 강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 도시의 공원수, 정원수와 울타리용으로 심어도 좋다. 햇빛을 좋아하지만 그늘진 곳에서도 잘자라 정원이 없는 아파트에서도 열매가 열리는 암나

무 한그루쯤 화분에 심어 관상할 만하다.

4. 번식법

-종자번식 : 종자가 익으면 11월경에 양묘장에 깊이 2cm, 간격 2cm로 점파하여 비배한다.

- 삽목번식 : 7~8월경 그해 자란 가지의 다소 굵은 것을 10cm 길이로 잘라 밑쪽 잎을 따내고 진흙 경단을 붙여 굵은 모래에 반 정도 묻히게 꽂는다. 이때 발근부에 루톤(발근촉진제)을 묻혀서 진흙경단을 붙이면 발근율이 좋아진다. 뿌리가 나면 물에 흔들어 붙여둔 진흙경단을 떼어 버리고 본포에 식재한다.

5. 그 밖의 용도

열매가 달린 상록의 잎을 꽃꽂이 소재로 활용하고 한방에서는 잎은 柗骨葉라하고 뿌리는 柗骨根, 나무의 수피를 柗骨樹皮, 열매를 柗骨子라 하여 약용으로 이용한다. **조경수**